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9년도 표어 ⊗

“우리를 고치시는 그리스도”(마8:7)

⊗ 4대 실천강령 ⊗

- 1. 은혜 주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먼저 회개한다.
- 2. 고치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서로 위로한다.
- 3. 보혜사 성령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바친다.
- 4.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작은 목소리들 모아 땅끝까지 울리게”

다락방별 열린 찬양대회 내달 7일 예선... 결선은 9일

올해 실시되는 다락방별 찬양대회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다락방 찬양대회에는 다락방별 또는 연합 다락방별로 팀을 구성하여 참가하게 된다.

예선은 5월 7일(금) 오후 7시 부터 개최된다. 결선은 5월 9일(주일) 찬양예배 시 갖는다.

대회에서는 지정곡과 자유곡 등 찬송가 2곡을 부르게 된다. 지정곡은 찬송가 446장 ‘오 놀라운 구세주’ 1절이며 자유곡은 찬송가 중 임의로 선정하면 된다.

대회 심사는 찬양대 지휘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에서 맡는다.

예선에서 모두 5개 팀이 결선에 진출하며 결선에서 믿음상, 소망상, 사랑상 등 수상팀을 가리게 된다. 수상자들에게는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다고 대회 준비측에서는 밝히고 있다.

다락방 찬양대회는 다락방의 활성화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올해 처음 마련됐다. 이는 작년까지 해마다 가정의 달인 5월에 열렸던

가족찬양대회를 확대 개편한 것이다.

이번 대회를 위해 이미 많은 다락방들이 본격적인 연습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각 다락방들이 대회에 거는 큰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

찬양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 다락방 내에서 서로 호흡을 맞추는 동안 서로 뜨거운 감동을 체험하고 또 다른 다락방들의 관계를 새로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상 특강●

예배와 예배음악

이 글은 4월 12일(월) 열린 제 15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중 박상수 연세대 명예 교수의 강의 일부를 발췌, 요약한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예를 갖추어 최고의 정성과 최선의 준비로 해야 한다.

“여호와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 지어다”(시29:2, 96:8)

한국 교회의 예배는 설교 중심인 것이 특징이다. 모든 예배 순서가 설교를 정점으로 예비되고 마무리되곤 한다. 그리고 미국의 복음송가(Gospel Song)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예배 음악은 예배에 봉사하는 음악이다. 여기엔 회중 찬송과 성가대 찬양, 오르간 음악이 포함된다. 기본적으로 경건과 흠송 즉 찬미 (Piety and Adoration)로 요약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다. 예배 음악은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하나님 중심의 음악이라는 점에서 세속 음악과 구분된다.

포크너 박사(Dr. Quentin Faulkner)는 현대 예배 및 예배 음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즉 하나님 중심인 전통적인 예배 (Traditional Worship) 와 사람 중심인 소비자 중심(Consumer-oriented)의 예배를 구분했다. 소비자 중심의 예배는 기복신앙, 보상을 받기 위한 신앙에 근거한 것으로 상업적 가치의 예배, 소비자를 즐겁게 하는 예배 스타일을 추구한다. 이에 따라 종교와 오락 (Entertainment)의 경계가 없어졌다. 이러한 경향은 양적 팽창과 교세 확장이라는 즉각적인 반응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기쁨과 즐거움 (Joy &

Happiness)은 경건의 정서(Piety)와 동일시할 수 없다. 세속적인 오락 음악은 예배음악의 본질인 진리의 선포와는 거리가 멀다. 예술성을 지닌 예배 음악의 훌륭한 전통에는 무관심하고 시류에만 영합하는 것이다.

예배 음악의 성경적 근거는 골로새서 3장 16절과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찾을 수 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골3:16).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엡5:19).

여기서 시편(시)과 예배에 부를 정성껏 다 들어진 창작찬송가(찬미)와 은혜 받고 간증하는 노래(신령한 노래, 가스펠송)를 구별해서 지칭하고 있다. 미국 개신교 주류 교단들이 예배시간에 복음송가를 금기시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예배에 부르는 찬미가(찬송가)와 복음창가(복음송가)를 구분하고 있음을 우리도 한번 유의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표>

시	Psalms	구약 시편	경배	경배(禮拜)
찬미	Hymns	창작찬송가	찬양	신앙고백(信仰告白)
신령한 노래	Spiritual Song	즉흥적인 노래	증거	선교(宣教)

* 위 셋은 간혹 혼용되는 경우도 있었음.

이사야 강해

혹독한 묵시

이사야 21장 1 - 10절

선지자 이사야는 바벨론의 멸망을 묵시로 보았습니다. 본문의 묵시를 혹독한 묵시라고 한 것은 그 내용이 잔인하기 때문입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교로 해변은 유브라데스 강을 말하고 광야는 바벨론을 말합니다.

1. 제일 먼저 소식을 들은 선지자

바사 군대가 아주 급하게 회오리바람같이 몰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선지자 이사야가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네겝 회오리바람처럼 급속도로 빠르게 원수가 쳐들어오는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듣지 못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듣지 못하면 진리를 분간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귀가 막혀서 전혀 듣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선지자는 네겝 회오리바람처럼 몰려오는 적군들에 의해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바람 소리를 통하여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듣고서 못들은 채 하지도 말고 또 잘못 듣지도 말며 바로 듣는 귀를 가져야 합니다.

2. 혹독한 묵시를 본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바른 소리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보았습니다. 속이는 자는 당시에 가장 거짓말과 위선이 많았던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은 속이는 자의 대명사입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은 전쟁은 일으키기도 하시고 승패를 가르기도 하십니다.

미래 상황을 확실히 듣고 본다면 그 다음 행동은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본 선지자를 부러워 할 것이 아니라 시간의 세계를 초월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2절). 이것은 바벨론이 망하므로 인하여 바벨론에 억눌리던 모든 사람들이 자

유와 해방을 얻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자신이 듣고 보았으므로 확신 있게 선포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종은 이와 같이 듣고 본 것들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건을 만나든 항상

다"(4절). 이것은 하루종일 일하던 사람이 바라는 밤과 같이 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희망의 밤이 변하여 떨림이 되었다는 것은 밤새 두려워 떨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할 일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 날을 두려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 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

"해변 광야에 관한 경교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네겝 회오리바람 같이 몰려 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열람하여 올라가고 메대어 에워차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사 21:1 - 10)



이종운 목사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본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와 희망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3. 선지자의 자세

모양이 망할 때 이사야가 운유한 심정을 나타낸 것처럼 바벨론이 하나님의 화를 받아 망하는 모습을 듣고 본 선지자는 그들을 향하여 동정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요통을 느끼고 보지도 듣지도 못할 만큼 바벨론의 아픔에 관해서 고통을 느꼈습니다(3절).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잠 24:17).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사실은 우리도 망해 가는 바벨론보다 더 무서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뿐입니다. 원수가 넘어질 때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고통이 해산이 임박한 여인과 같다는 것은 바벨론이 받을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암시합니다.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

다" 한 경의심은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4.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한 이사야

5절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이 잔치석상에서 원수에게 죽음을 당하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원수들이 몰려오는 것을 파수꾼처럼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빨리 회개하기를 촉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만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또 본 사람은 빨리 말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선지자 이사야가 한 일이며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에게 무장을 하고 전쟁 준비를 하라고 경고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판단을 하며 보이지 않는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수꾼은 볼 수 있으며 본 사람은 빨리 말해야 합니다. 파수꾼이 계구실을 하지 못하면 민족이 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들으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여 저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리스도 예수의 품안에서 구원을 받고 피난처를 얻을 수 있도록 성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노방전도를 다녀와서

낮아짐을 알게 된 첫 노방 전도

전복례 (집사, 11교구)

남편과 아이가 현관문을 나선 아침에 지난 번 에스더회 월례회때 논의된 안건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한번도 나서본 적이 없었던 노방 전도였습니다. “어떻하나...”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냥 무시하기로 하고 청소나 하려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상큼한 공기와 함께 땅을 타고 올라오는 푸르른 생명의 소리가 제 어두웠던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길로 바로 교회에 닿았습니다. 2층 예배실로 올라가 모인 많은 회원들과 함께 고요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부서보고를 간략히 마친 후 노방전도에 대한 실제적인 안내를 받았습니다. 4명을 한팀으로 하여 전도를 나서게 되었습니다. 출발에 앞서 정성스레 접은 전도지를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려진 화장지를 한아름 안았습니다.

“처음에 무슨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같은 조에 속한 회장님의 미소가 바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강남역쪽을 향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 채 끝맺기도 전에 확 가버리는 청년의 남자를 보곤 그만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용기를 내어 “이것좀 봐주시겠어요?” 하고 지나가는 한 여학생을 찾았습니다. 화장지에 그려진 예수님 상을 보곤 미소가 번졌습니다. 뿌듯한 기분.

그러나 곧 다시 “됐어요, 됐어!” 투명스럽게 등을 보이는 젊은 청년의 뒤통지가 되돌아왔습니다.

많은 무표정한 얼굴을 접한 후 마지막 남은 전도지와 화장지를 손에 꼭 쥐고 있다가 지나가는 한 할아버지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교회로 돌아오는 길은 기대했던 벽찬 가슴보다는 지나쳐 가버린 사람들의 얼굴로 온통 가득찼고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한번 힘차게 외치기도 못한 아쉬움이 자꾸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나 여러 전도팀이 다시 모여 등글게 앉아 이야기하는 중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성경 말씀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어 예배를 드리며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 속에 제 간증이 솟구쳤습니다. 더 낮아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된 하루였습니다.

중국교회를 돌아보고

변화된 한 가정에서 싹을 보았다

김선미(권사, 11교구)

얼마전 오빠가 82세로 세상을 떠났다. 거의 70년 동안 불교를 믿었고 예수를 믿는다고 나를 편견했던 그 오빠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달라졌었다. 당신의 외손자 부부 전도로 하나님을 믿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이다.

오빠의 장례를 마치고 나는 바로 중국으로 떠났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지고 간 성경책이 든 짐꾸러미도 무사히 중국 입국 심사대를 통과했다.

당초 계획은 다른 곳을 둘러 본 후 갈 생각이었으나 목단강으로 발길이 닿았다. 전부터 알고 있던 그곳 칼로 교회는 홍콩에서 오신 중국 목사님 등 48명의 성도가 섬기고 있다.

나를 안내하는 한 청년은 그가정의 변화를 이야기해 주었다. 큰 아들이 세상을 뜨고 난 후 아버지가 변화했다는 것이다. 또 그렇게 좋아하던 술과 담배를 끊고 통신으로 신학 공부를 하고 전도사로 세움을 받았다고 한다. 또 경영하던 공장에 신학교를 세우기 위해 이미 건축허가를 얻었고 자금이 마련되는 대로 벽

돌을 쌓을 계획이라고 한다.

그 청년도 중국에 있는 한국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역하는 등 봉사하고 있으며 목회자의 길을 꿈꾸고 있다. 여동생은 울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중이다.

그 교회도 전에 금전적 어려움이 닦혔었다. 빌려쓴 돈을 못갚아 자칫 교회당을 모두 빼앗길 뻔한 것이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교회의 반은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한다. 현지에 있는 동안 교회에 꼭 필요한 컴퓨터, 인쇄기 등을 구입했고 우리 교회에서 발간하는 순례자도 전달했다. 이튿날 성도들은 인쇄된 주일 예배 순서지를 받아 볼 수 있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인구나 엄청나게 넓은 땅을 자랑하는 나라다. 이제 곳곳에 뿌려진 이러한 작은 씨앗에 물을 주고 기우어 넓은 중국 땅에 말씀으로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기도와 물질로 지원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또 모 재벌회장이 소매를 물고 갔던 길을 우리는 비길 데 없는 복음을 들고 갈 그날을 소망한다.

안녕하세요, 지혜영전도사님

“값진 말씀 더 듣게 전도에 힘써야지요”

예배드리러 오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올해 초부터 교회 문턱에 서서 한사람 한사람 손을 잡고 밝게 인사하는 검은 정장 차림의 한 분을 떠올릴 수 있게 됐다. 바로 지혜영 전도사이다.

- 그동안 느끼신 점은

“아직 얼마되지 않았는데요... 먼저 예배를 최고·최우선으로 여기는 서울교회로 저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 시간 값진 말씀으로 얻는 영적 행복감 때문에 늘 예배실의 앞자리에 앉게 됩니다. 또 전도에도 힘써야겠지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봉사하시는 모습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말씀과 봉사는



딸의 가족과 함께 한 지 전도사(중앙 왼쪽)

불가분리라는 원리를 생각해됩니다.”

- 사역의 길로 나서신 계기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새벽기도회를 나갔습니다. 성경을 바로 알고 싶어했던 그때의 열정은 대단했지요. 그럼에도 집안의 뿌리 깊은 유교 사상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대학 졸업 후엔 수색에 있는 한산 등성이에서 야학 교사로 봉사했고 청소년을 교도하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 앞으로의 계획은

“그동안 일정에 쫓겨 영·육간의 끈고 함에 처한 성도들을 만족하리만큼 돌보지 못한 것이 늘 아쉬웠습니다.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일하려 합니다. 갑절의 달란트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인간적으론 손자를 자주 보지 못하는 게 가장 아쉽지요.” 가족으로는 딸과 사위 그리고 한 살과 두 살 난 외손자가 미국에 살고 있다.

<문형미 기자>

새가족이 되고 보니

잊을 수 없는 표정

김윤정 (새가족)

저는 서울교회를 통해 주님을 알게 된 지 이 제 8주를 갓 넘긴 새내기 신자입니다. 미션스쿨을 다니면서 별로 깊은 신앙도 없이 의무감으로만 주님을 믿던 저는 앞집 아주머니의 전도로 교회문을 들어서긴 했지만 “교회는 다 거기서 거기야. 얼른 예배나 보고 집에 가야지” 하는 생각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처음으로 인도된 곳은 새가족 부엌입니다. 분위기가 참 좋다고는 생각했지만 예배를 드리고 또 새가족부에 가서 공부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해서 건성건성 참여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에 한 번 찬양예배시간에 진행되는 새가족환영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새가족들의 소개 시간이 되었고 제 차례

가 돌아왔습니다. 서울교회에 오게 된 경위를 얼마쯤 이야기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한 아주머니의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시고 마치 광명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것이었습니다. ‘저 아주머니는 뭐가 저리 기뻐서 날 저런 표정으로 쳐다보고 계실까? 구원을 받아도 내가 받는건데 당신께 무슨 득이 된다고...’ 잠시 후에 알았습니다. 그 아주머니뿐 아니라 거기 계신 분들이 그 아주머니와 같은 표정으로 절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그분들의 모습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주님도 저렇게 기뻐하실까...’ 갑자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제 구원을

받았구나 하는 확신과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알파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제가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기에 그것은 한마디로 전율이었습니다. 아마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일 것입니다. 이제는 제가 새로 주님을 알게 된 분들께 그런 표정을 보여드리기 위해 새가족부에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저를 보고 조금이나마 구원의 확신을 받을 수 있기를, 서울교회에 잘 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열심히 다닐 것입니다. 주님의 모습을 닮기 힘쓰는 서울교회의 모든 가족과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희 부모님 같은 분들께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환영합니다, 새가족 여러분!

* 오늘 찬양예배시 새가족을 환영하는 순서를 갖습니다.

* 초청된 새가족*

오경아 원문희 이자은 전애자 문지영 박이정 맹창섭 이익창 이현옥 서덕원 김미정 이광열 김영순 이동현 최한나 권오홍 조선자 문영배 김정남 김대영 그리고 오늘 등록하신 분

넉넉한 가정

5월을 앞둔 4월의 마지막 주일이다. 연중 가장 따뜻한 기분을 느낄 계절이다. 교회 각 부서에서는 야외로 나가 모임을 가지려는 생각이 많이 들 때다. 비교적 인간의 손때가 덜 묻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의 자연을 더 가까이서 느낄 수 있도록. 요즘 대부분의 주요 국내 보도기관에선 기업체 간 빅딜이나 파업 소식을 머리기사로 올린다. 수조원의 거래 대금이 오가고 서울 지하철이 단축 운행에 들어갔다는 것이 관심을 모으는 일이지 할 터이다. 그래도 달리 보면

우리 나라의 살림이 예전보다 훨씬 복잡해졌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필요함에도 부족한 것은 물질적인 데 있지 않을 것이다. 처음 사람이 애초에 필요했던 것은 몸을 가리우는 천 조각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손상치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한 아무 것도 모자랄 것이 없고 모두 부요했다.



5월 초순 다락방 찬양대회가 열린다. 비록 다듬어지지 못한 목소리, 어설플 찬양팀일지는 모르나 넉넉한 음악회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많은 다락방이 참여하고 많은 성도들이 들었으면 한다.

- 등징**
- * 이종윤 목사는 29일(목) 육·해·공군 영성수련회에서 강의한다.
 - * 이번 주 식사는 원복순 권사 가정에서 제공했다.
 - * 루디아 제 1전도회는 김치통, 수저통, 된장, 간장을 기증했다.
 - * 베드로 제 5·6선교회는 26일(월)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기도회 및 현장 방문을 한다.

- 제 15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 ① 4월 26일(월) - 오후 2시 - 5시 20분
 - 제 1교시 / 여호수아서 연구 (이종윤 목사)
 - 제 2교시 / 영상 목회와 그 사례들 김항안(한국교회정보센터)
 - ② 4월 26일(월) 오후 2시 - 5시 20분
 - 제 1교시 / 여호수아서 연구 (이종윤 목사)
 - 제 2교시 / 디아코니아목회와 교회 성장 성종현(장신대)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K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서울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다락방찬양대회를 위해
2. 새가족의 신앙성숙과 교회생활 적응을 위해
3. 목회자신학세미나와 서울성경대학을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